'한마음' 근원서 지혜광명 나툰다

문답으로 풀어본 禪 ㊦

문 생사의 미혹은 망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망념이 일어나는 그 근원을 찾아 밝혀 본다면 생사의 미혹은 저절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 일단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범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망념에 사로잡혀서 머리품이 뒤집혀져(顚倒) 버리기 때문에 본분의 불성 등은 어디 번뇌의 티끌 속에 매몰되어 버린 상태가 된다. 명월을 구름이 뒤덮어 버린 것과 같다.

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실로 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망념(번뇌)을 수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무시겁래로 생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커다란 망념인 삼독 무명의 뿌리를 완전히 절단해 버릴 때까지 끝까지 수행 정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생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무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기만 한다면 번뇌는 전향하여 보리가 되며, 삼독은 변하여 삼취정계가 되며, 생사는

망상의 뿌리는 꿈·물거품 실재한다고 믿으면 자기 잃어버려

그러나 잠시 한 순간 감추어진 것일 뿐이지 불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는 그 근원만 안다면 명월이 구름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본분의 불성도 다시 빛나게 되는 것이다.

문 앞에서 좌선의 마음가짐으로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一切善惡 都莫思量: 선과 악, 그 어떤 것이라도 사량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 어떤 것이라도 생각(思量)하지 말라! 이 한 구절은 진실로 생사의 근원을 끊어 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다. 좌선할 때만의 마음가짐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 한 구절에 확신이 철저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부처이다. 매일의 일상에서도 이 한 구절을 염두에서 여의지 않고 일을 처리해 간다면 눕거나 일어서거나 일체의 모두가 그대로 선의 생활이 된다.

문 망념을 설한 가운데 큰 망념, 작은 망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답 작은 망념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처럼, 오관이 밖의 외경에 접촉하여 그때 그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번뇌이다.

큰 망념이란 이처럼 일시적인 번뇌가 아니라 무시겁래로 생명 그 자체에 밀착하여 생사의 근원이 되고 있는 탐진치의 번뇌를 말한다.

좌선하고 있을 때만은 이 대소 삼독의 망념(번뇌)에서 해방되는데, 그것을 만사 충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실한 도

그대로 영겁의 열반이 되며, 육근의 활동 작용이 그대로 제불의 육신통이 된다.

문 다년간 좌선 수행해온 사람은 구름걷힌 달과 같고 먼지가 없어진 거울처럼 몸과 마음이 청정하겠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망상과 전도된 생각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어떻게 수행해야 망상이 없어지는지.

답 망상과 전도된 생각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망상을 없애리라! 없애리라! 라고 하면 할수록 망상이 더욱 더 일어나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도 오로지 진실의 자기를 분명히 밝히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수행이다. 진실의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청정하여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망상과 전도가 실재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수면중에 꿈을 꾸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웃을 일도 울어야 할 일도 없지 않은가.

망상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애를써도 벗어나기 어렵지만, 일단 본심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모두 공(일체개공)한 것이므로 본래 아무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 번뇌가 보리(번뇌즉보리)이며, 생사가 열반(생사즉열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

답 우리들의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심인 것으로, 아무것도 없

◇일심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에 번뇌 망상에 오염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어나듯이…

생활에 걸림없으면 생사즉열반 번뇌에 방해받지 않으면 번뇌즉보리

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일념(망념)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다음의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 생각이 어지럽게 일어나, 눈 깜짝할 잠깐 사이에 망상 전도가 생겨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생사의 근본이다.

일심은 본래 무(無)인 것이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 것임을 알면 그곳에는 자기다, 남이다 라고 하는 차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미워함도 없고 귀여워함도 없다. 완전히 무념인 것이며 무심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생사를 여의고, 자타 가운데 있으면서 자타를 초월하여, 선악 애증, 그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물건에도 집착하거나 걸림이 없는 생활을 생사즉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심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념 망상을 실재한다고 생각하여, 항상 진실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불성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망상 번뇌의 근원을 다 밝혀보면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아무 것도 있지 않는 것이다.

일심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에, 번뇌 망상에 오염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번뇌 망상이 아무리 많아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마음의 경지(心境)를 번뇌 즉 보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일심의 근원에 도달하면 본분인 큰 지혜의 광명이 저절로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 그곳에는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며, 일체의 만법이 이 일심 가운데 수습되고 만다. 그리고 제불의 깨달음인 공의 경지를 체득하게 된다.

문 견성하여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번뇌 즉 보리이며, 생사 즉 열반이기 때문에 그 뒤는 이제 아무 것도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답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본심을 깨달아서 알아버렸다면 경전의 말씀은 이제 필요없는 것이다. 팔만사천의 법문도 모두 일심 가운데 역력해 마치 손으로 붙잡을 수 있

별의 관념이란 없다.

우리들의 이 육체는 인연에 의해서 가짜로 결합된 풀잎의 이슬과도 같은 것이다. 이슬에는 본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멸했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다.

인간도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성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태어났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죽었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무념 무심으로 있으면, 설사 견성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삼세제불의 대열반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된다.

최후의 임종에 임하여 선악 고락등 여러 가지의 헛된 모양(幻相)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일체 상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곳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미혹의 원인이 된다.

다만 한결같이 무심을 수행하여, 앉으

눈 열리면 '일체개공' 알게돼 부처 중생, 정토 예토 없다

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다.

일심을 깨달아버리면 이제 한권의 경전도 필요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의 말씀(語句)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과 같은 것이다. 아직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왓조각을 집어들고 대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되지만, 일단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기왓조각은 필요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불조의 본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경문의 가르침도 소중한 것이고, 조사의 말씀(語句)을 공안으로 하여 문제제기(提起)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미 견성하여 깨달음을 얻고, 불조의 본의를 철저히 알아버렸다면 견성이라는 것도 특별히 기특한 일이 아니게 된다. 성불이라는 말도 필요 없게 된다. 찾고 구해야할 부처도 없고, 싫어해야할 중생도 없기 때문이다. 본래무일물인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서도 얻을 것이란 없는 것이다. 불가득인 것이다.

문 견성성불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면 언제 죽더라도 대안심이며, 대왕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할 경우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최후의 각오(覺悟)에 대해 일러주시길…

답 심중에 일념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생사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본래 무심인 그대로 있으면 몸이 생겼다(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을 것이고, 본래 무념인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죽는다(滅)라고 하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무념 무심한 그곳에는 생

나 서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이 무심의 경지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훨씬 좋은 임종의 마음가짐이다. 이밖에 달리 임종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진실로 무심의 도에만 안주할 수 있다면 벚꽃의 꽃잎이나 나엽이 바람부는 그대로 흩날리는 것같이, 또한 서리나 흰 눈이 아침 햇살에 그대로 녹아버리는 것처럼, 미련없이 깨끗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준비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일까?

진실로 이 무심의 경계를 알면, 미혹하지 않으면 안될 삼계 육도도 없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정토나 예토도 더이상 없다. 부처도 중생도 없다. 이 무심의 도에 안주하여 생사가 없어진 경지를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후에 설법한 〈涅槃經〉에서 '제행은 무상한 것. 이것은 생멸의 법이기 때문이다. 생멸이 멸기하면 적멸을 가지고 낙으로 삼는다'라고 설하셨다.

무심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삼세 제불의 본사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제일의 부처이다.

이 무심의 본체(本體)를 완성하는 것이 제불의 깨달음이다.

이러한 불법의 깊은 뜻을 아는 이것을 적멸위락이라고 말한다.

이와같이 무심의 법을 돈독히 믿고, 임종에 즈음해서는 그 무심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움말: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